

부르는게 값... 열받는 에어컨 이전 설치비

업자마다 15~30만원 제각각... 부품비 부풀려 비용 전가 광주시·구청 “단속기준 애매” 손 놔... 소비자 불만 급증

광주시 북구에 사는 주부 채모(38)씨는 지난 22일 에어컨을 새로 교체하면서 기존 중고 에어컨을 이웃에 사는 주부 고모(41)씨에게 선물했다가 되레 미안함을 느껴야 했다. 평소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폭폭씨는 폭염에도 에어컨 구입을 미뤘었던 고씨는 채씨로부터 받은 중고 에어컨을 이전·설치하면서 무려 30만원의 설치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채씨가 해당 에어컨을 새 제품으로 구입할 당시 금액은 50만원으로, 설비업자는 이전 설치 비용으로 에어컨 가격의 70%나 받아간 것이다.

채씨는 “새로 부품을 교체한 것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에어컨 설치에 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책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에 들쭉날쭉 ‘부르는 게 값’인 에어컨 설치 비용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새 제품을 살 엄두가 나지 않아 기존 중고

제품을 이전 설치할 경우 업체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사실상 ‘폭리(暴利)’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구청 등 관할기관에선 ‘단속 기준이 애매하다’며 관리감독에 두 손을 놓고 있어 광주시민들의 개별적인 주기가 요구되고 있다.

새 제품을 사는 경우엔 판매가격에 에어컨 설치가격이 포함돼 있어 동파이프 등을 연장하지 않는 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새 에어컨을 구입해도 신규설치 기간이 최대 2주가 걸리는 탓에 이마저도 여의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일보가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내 에어컨 설치업체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에어컨 설치 업체마다 요구하는 이전 설치비용이 달랐다.

A프라이저는 벽걸이·스탠드 에어컨 기준으로 이전설치비만 40만~45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배관비·타공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스탠드 또는 벽걸이만 단독 이전설

치 땀 25만~30만 원이었다.

B에어컨의 벽걸이·스탠드 에어컨 설치비는 30만원으로, 단독 설치 땀 15만원을 받고 있다.

C시스템은 20만~30만원의 이전설치비를 받고 있었다. 배관다 등에 놔두는 실외기 지지대 설치 비용 10만원은 별도였다.

업체마다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45만원을 받고 있는데, 가격차가 최대 15만원까지 나는 셈이다.

일부 에어컨 업체들은 소비자들에 에어컨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과 이전 설치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점 등을 악용해 근거 없이 과다요금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부품 등을 사용해 비싼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차라리 새 에어컨을 구입하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오지만 올 여름 유난히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에어컨 주문이 쏟아지면서 전자제품 업계의 신규설치 기간도 최소 3일에서 최대 2주가 소요되고 있다.

업체마다 요구하는 에어컨 이전 설치비용이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소비자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할 광주시와 각 구청 등은 ‘과다 비용 청구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폭리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 107건,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부터 매 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큰 폭(65.4%·8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접수된 총 444건 중 설치비용 과다 청구는 28건으로 전체의 6.3%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에어컨 이전 설치의 업체와 개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도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한 소비자보호원이 중재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나중에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되도록 대기업 등 믿을 만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충행기자golee@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22.96 (+20.25)
- ↑ 금리 (국고채 3년) 1.73% (+0.01)
- ↑ 코스닥 653.12 (+2.65)
- ↑ 환율 (USD) 1121.30원 (+2.30)



지난 31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광주은행 송중욱 부행장(왼쪽)과 정일보 하나투어 호남사업본부 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하나투어’로 여행하면 광주은행 금리 우대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 II’ 출시... 내달 22일까지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1일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 II’를 출시하면서 하나투어(대표 김진국)와 공동마케팅을 위해 지난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은 광주은행과 하나투어가 ‘금융과 여행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2015년 7월 첫 선을 보였다. 이후 저금 우대금리 및 하나투어 여행상품 이용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올해 7월 말 기준 3만3000좌 이상 판매되는 등 고객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상품 출시 2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우대혜택을 더욱 강화한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 II’를 새롭게 출시하게 됐다.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 II’는 기존 상품 대

비 금리를 0.3% 인상해 1년제 기준 최대 1.8%까지 제공하며, 하나투어 그룹사인 하나투어(대표 김진국)와 공동마케팅을 위해 지난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은 광주은행과 하나투어가 ‘금융과 여행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2015년 7월 첫 선을 보였다. 이후 저금 우대금리 및 하나투어 여행상품 이용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올해 7월 말 기준 3만3000좌 이상 판매되는 등 고객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상품 출시 2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우대혜택을 더욱 강화한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 II’를 새롭게 출시하게 됐다.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 II’는 기존 상품 대

다시...가솔린車 ‘전성시대’

올 상반기 신규 등록 50%...전기차도 사상 최고

미세먼지 논란과 경유세 인상 가능성 등 디젤 자동차 인기가 떨어지면서 가솔린 승용차의 전성기가 다시 찾아왔다.

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신규등록 승용차 가운데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의 비중은 50.2%로 최종 집계됐다.

가솔린 승용차가 과반을 차지한 것은 지난 2013년(연간 52.7%) 이후 약 4년의 점유율은 36.3%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상반기(40.6%), 연간 전체(39.7%)보다 3~4%p 더 떨어진 것으로, 2013년(연간 32.4%) 이후 4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이브리드(내연기관+전기모터)차, 전기차 등 이른바 ‘전환형’차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상반기 전체 신규등록 승용차 가운데 4.4%는 하이브리드 차였다. 이 비중은 불과 4년 전 2013년(2.3%)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전기차 비중도 사상 최고 수준인 0.6%까지 늘었다. 지난해(연간 0.3%)의 두 배 수준이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OB 동우회 “부실매각 반대”



1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앞에서 ‘금호타이어 OB 동우회’가 집회를 열고 채권단에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OB 동우회 제공>

금호타이어 전직 임직원들 모임인 ‘금호타이어 OB 동우회’는 1일 더블스타로의 ‘부실 매각’에 반대한다며 채권단에 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김창규 전 금호타이어 사장과 박찬범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운영주 전 아시아나항공사장 등 OB 동우회 회원 5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더블스타의 규모와 기술력 등이 뒤처지는 데다 주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돼 국내 타이어 산업에 위협을 초래한다면서 부실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 현직 임직원은 매각 없이 회사를 정상화해 우량기업으로 재도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폭염·폭우에 꺾일줄 모르는 소비자물가

광주·전남 7월 전월비 2.2% 상승...신선식품지수 9.6% ↑

광주·전남 지역의 7월 중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과는 보험세를 이뤘지만,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채소류 가격은 급등했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중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2.

83을 기록했다. 지난해과 보험세를 이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2% 상승한 것이다.

7월 중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지난해보다 3.1%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는 9.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추(56.7%)와 배추(32.2%), 시금

치(65.8%), 오이(49.4%), 호박(45.3%) 등 폭염과 폭우로 작물피해가 컸던 채소류가 급등세를 보였다. 구내식당식사비(3.1%), 쌀(6.4%), 달걀(2.1) 등도 올랐다.

반면, 내린 폭풍은 휘발유(-2.4%), 경유(-2.5%), 수박(-13.8%),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6.2%), 토마토(-16.1%), 오징어(-9.1%), 닭고기(-9.0%), 세탁세제(-8.6%), 수입 쇠고기(-6.1%) 등이었다.

전남지역의 7월 중 소비자물가지수도

102.88로 지난해보다 0.1% 올랐고, 전년도 같은 달보다는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물가지수는 103.23으로 광주와 마찬가지로 전달과 보험세를 이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3% 상승했다.

폭풍성질별로 공업 제품은 0.6% 하락했지만 농축수산물(1.0%)과 서비스(0.5%)는 상승했다.

역시 배추(55.8%), 시금치(80.6%), 상추(52.8%), 오이(50.2%), 호박(48.9%) 등 채소류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명당찾아 삼천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터(양택)와 가장 좋은 묘터(음택)을 찾아줍니다!

(정호) 안 성 준 010-3342-6338

특허방수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탈턴트 이영후**

한국방수시험연구원 2014 제2008-24호에 의거한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5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물이 서면 타고 번져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시청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www.ipalg.co.kr에서 만나보세요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디나와와 풀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